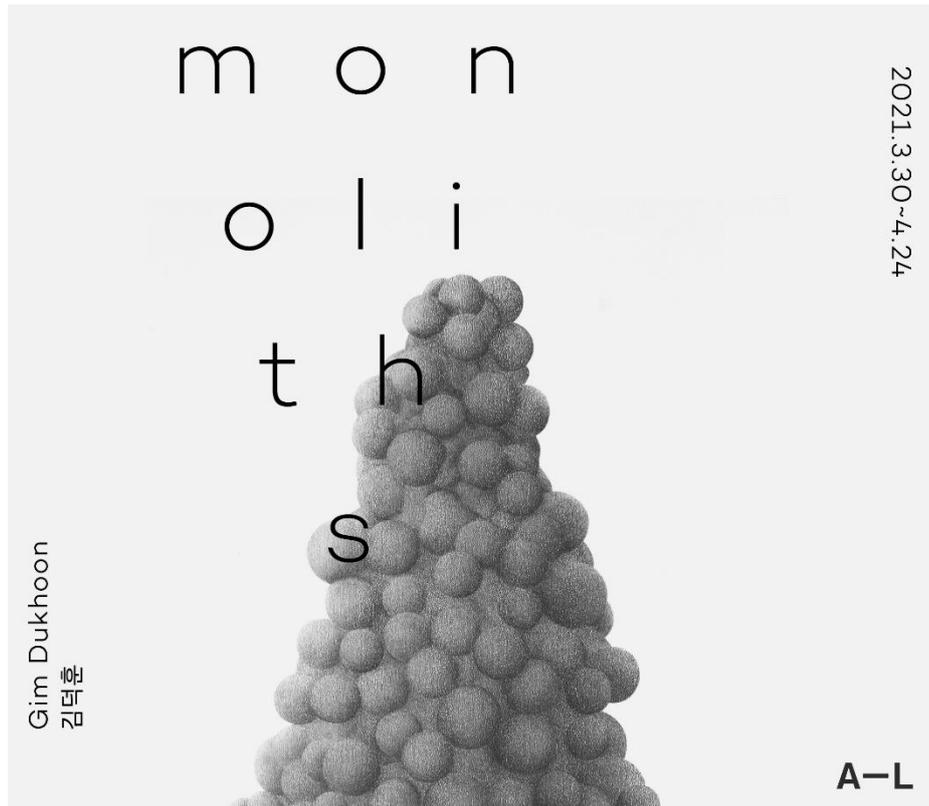


[보도자료]

김덕훈 개인전 《Monoliths》



○ 관람 안내

참 여 작 가: 김덕훈

전 시 제 목: **Monoliths**

일 정: 2021년 3월 30일 (화) – 2021년 4월 24일 (토)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문의: 02-395-8135, 이승민: 010-5222-8135)

개관 시간: 화-토, 11am-6pm (일, 월 휴관)

○ 전시 개요

에이라운지(A-Lounge)는 오는 3월 30일 화요일부터 4월 24일 토요일까지 김덕훈 개인전 《Monoliths》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작업 세계 전반을 조망한다. 2015-2016년에 선보인 버드나무 시리즈, 2018년에 전시한 뉴욕 시리즈, 2019년에 소개한 영화 시리즈, 2020년에 제작한 정물화 시리즈를 한자리에 모았다.

김덕훈은 작품의 대상들을 돌과 같은 어떤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 작가는 스스로 이러한 방식의 작품을 'Monolith Drawing'이라 명명한다. 'Monolith'는 "하나의(mono-) 돌(lith)"이라는 의미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구조물이 여러 석재의 조합이 아닌 한 덩어리의 석재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다양한 시리즈의 작품들이 흑연이라는 하나의 돌에서 탄생한 것을 의미하며 이번 전시의 주제의식이 담겨있다.

김덕훈은 흑연이라는 돌로 이루어진 세상을 만든다. 작가에게 흑연은 개념적인 물질의 대체물이다. 즉, 그는 어떤 하나의 개념적인 혹은 상징적인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를 표현한다. 이 물질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물질들의 총체이며 근원적인 에너지 덩어리이다. 김덕훈이 만들어내는 세계에서 다종다양한 개체들은 모두 하나의 '돌'의 일부이며 평등한 위치에 있다. 많은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회 풍조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이다. 그의 작품에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없고, 상처를 받는 사람도 없다. 그 평화로운 세계에서 김덕훈의 연필은 오늘도 움직인다.

김덕훈 개인전 《Monoliths》 전시서문 발췌 | 최정윤 글

○ 작가 소개

김덕훈 (B.1976)

김덕훈은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와 홍익대학교 대학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한 뒤, 연필 드로잉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2015년 개인전 《Weeping Willow(수양버들)》(커먼센터, 2015)을 시작으로 《Event》(MRGG, 2016), 《Ecstasies》(KSD 갤러리, 2017), 《액체는 고체를 꿈꾸는가》(아트스페이스 오, 2018), 《Spectre》(에이라운지, 2018) 개최했다. 단체전으로는 《오늘의 살롱》(커먼센터, 2014), 《Vegetation》(롯데갤러리, 2018), 《Siesta》(에이라운지, 2019), 《그리는 시간》(합정지구, 2020), 《오감도: 한국미술의 다섯 풍경》(마나랏 알 사디얏 미술관, 2020), 《의미망》(챗터투, 2020) 등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훈

Willow

종이에 흑연

2018

105×74.8cm



김덕훈

in between

종이에 흑연

2019

52.5×74.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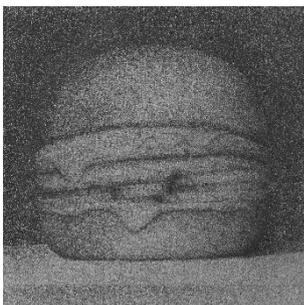
김덕훈

Juniper

종이에 흑연

2020

52.5×37.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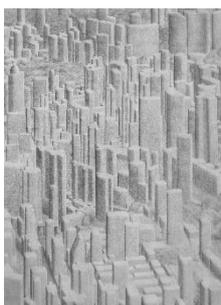
김덕훈

cheese burger

종이에 흑연

2020

52.5×52.5cm



김덕훈

22.2816 114.1512

종이에 흑연

2021

105×74.8cm